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



김 경 미

(연세대학교/한국옛집 콘텐츠 DB구축 사업단장)
<yetzip2@naver.com>



I. 서론

우리의 옛집에는 어디에나 한자기록물들이 곳곳에 걸려 있다. 이 기록물은 집의 명칭과 연혁, 인물의 내력, 집안, 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중요한 문화원형 자료들이다.

그러나 이 기록물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고, 초서로 쓰인 경우도 많아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 한자기록물들은 도난이나 화재, 훼손 등의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전국의 옛집에 걸려 있는 한자기록물들을 번역하여 체계화된 콘텐츠 DB로 구축하는 일은 전통적 공간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단은 고건축학, 한문학, 역사민속학, 서체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확보하고 한문학 전공자와 고건축학 전공자로 구성된 번역전담팀과 답사팀을 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의 지원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1단계 3년차 사업으로 완료하였다.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1,925건의 옛집 가운데 고가, 사묘·재실에 대하여 표준화된 건축정보자료를 만들어 콘텐츠 DB구축의 소스로 제공하였다.

둘째, 옛집에 대한 한자기록물 조사를 통하여 텍스트 자료, 사진 자료, 영상 자료 등을 제작하였다.

셋째, 한자기록물들의 원문을 입력하고 탈초하여 번역함으로써 정확한 텍스트 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렇듯 옛집 DB가 웹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정확한 기록자료에 의거한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의 건축문화와 주거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심화가 가능해졌다. 최근 들어 아파트 중심의 도시주택정책에서 벗어나 21세기형 신주택공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공감대 속에서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II. 사업의 배경

1. 사회적 배경

○ 21세기 정보 시대¹⁾

– 21세기(Biology + Neurology + Information + Technology = BMIT)

‘발생술 시대’로서 생명·신경·정보공학에 관심이 집중됨. 인간을 포함한 유기물 활동을 탐구하고, 정보화하는데 집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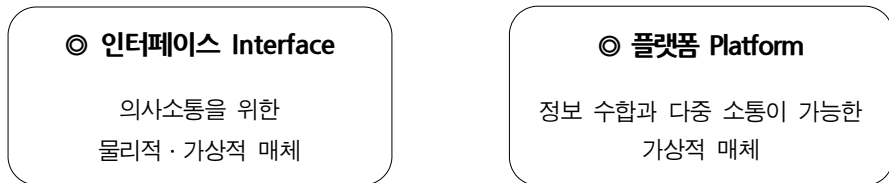
– 특히 Information Technology(IT)는 조사·창작·수집 결과물로서 해석되지 않은

1) 이 내용은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 제2차 학술대회 발표자였던 조현신 교수(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의 원고에 힘입은 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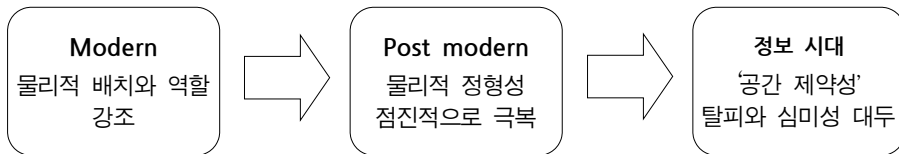
순수 상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임.

○ 전자 매체 발달과 물성의 전환

- 정보 시대에는 전자 매체 발달이 두드러짐.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상적 매체를 통해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소통체계를 갖추게 됨.



- 전자 매체 발달로 물성은 부수적·향수적 존재로 재인식되기 시작. 전자 매체가 구현하는 가상공간에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물리적 '공간 제약성'을 극복하였기에 가능해짐.



- 특히 물리적 '공간 제약성'을 극복하면서, 사물의 시각적 안정성·아취성·예술성 등 심미적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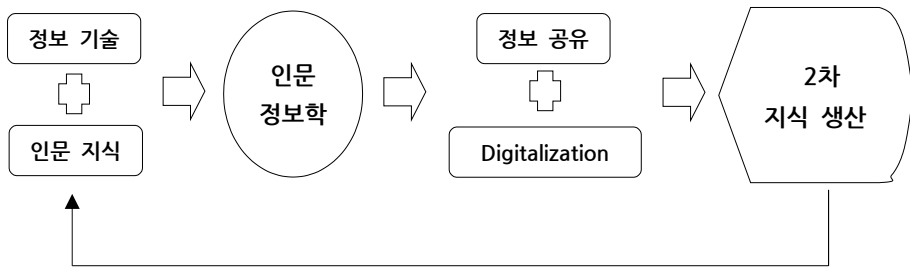
○ 인문학 부흥과 옛집

- 물리적 '공간 제약성'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공간 재생산'을 고민하게 됨. 물리적 효율성·합리성을 모색하는 사회과학보다, 인류 경험과 해안을 반추하여 인간성을 되찾는 인문학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함.
- 인문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심리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정신적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활동이 '공간 재생산'에 반영됨.
-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은 한국 옛집의 '공간 재생산'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사회 변화상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2. 인문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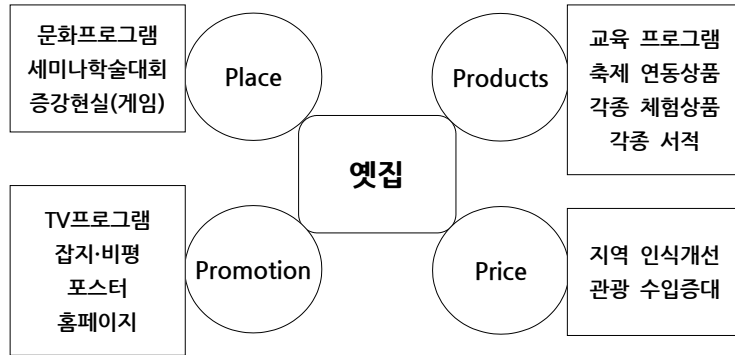
○ 인문정보학 필요성 대두

- 정보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상시성이 요구됨. 인문학 역시 전문 연구자와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함.
- 인문정보학은 인문 지식을 디지털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인문학 진입장벽을 낮추는 학문영역임. 인문정보학을 통해서 인문 지식은 문자텍스트 이상의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양산 될 수 있음. 향후 인문정보학은 시각적 인문학을 실현함으로써 2차적 지식생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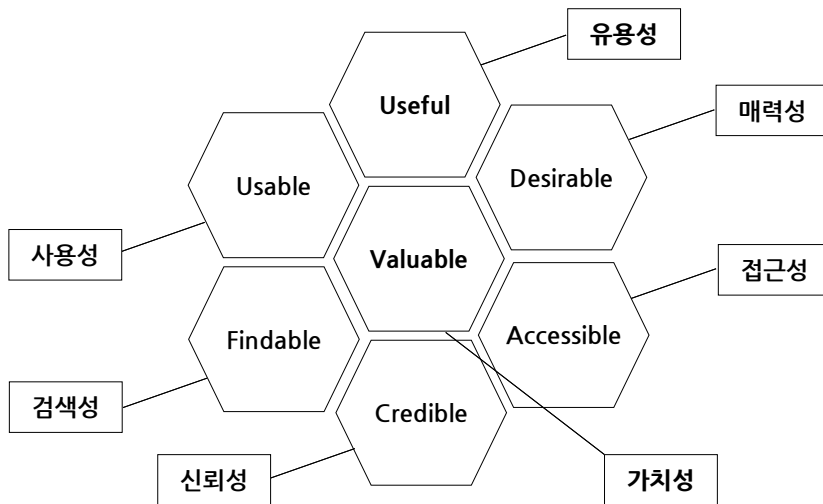


○ 인문정보학 콘텐츠로서 옛집

- 현대 투기적·과시적·잠정적 주거 형태와 달리, 옛집은 실용적·철학적·장기적 주거 형태를 취함. 따라서 옛집에서는 현대 주거 형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인문적 깊이를 체감할 수 있음.
- 옛집에 남아 있는 인문적 자취는 인문 지식에 대한 후대인들의 이해·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디자인 영역에도 영감을 제공함.
- 특히 옛집 한자 기록물에는 철학적·사상적 가치가 담겨있음. 옛집 공간 구조 곳곳에 배치된 한자 기록물은 옛집 개개의 이야기 거리를 담고 있음. 한자 기록물을 해석함으로써 역사적 사건과 지역성을 추적할 수 있음.
- 옛집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옛집의 Place, Price, Product, Promotion, 즉 4P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Peter Merville 정보설계 평가지표를 준용하면, 현재 옛집은 8개의 지표 중에 가치성과 유용성을 갖춘 상태임. 옛집은 영화 촬영소, 관광 명소, 문학 소재지 등 물리적 공간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반대급부로 지역 관광 수익을 보장하고 있음.



- 향후 IT 지식을 기반으로 미비한 정보설계 평가지표를 보충함으로써 옛집 콘텐츠를 더욱 전진시킬 계획임. 인문·문화 등 옛집의 정신 가치들을 부각시키는 작업은 옛집 '공간 재생산'과 맞닿는 지점임.

3. 정책적 배경

○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와 경쟁²⁾

- 동북아시아 문화교류는 최근 더욱 활성화되었음. 2013년 7월 한·중·일 3국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3국 중요한자 800자를 선정함. 같은 해 11월 한국과 중국은 외교·문화·교육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발족하여 인문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각국 사이의 문화 경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작업이 절실함.

○ 전통문화 생활화·현대화·산업화 도모

- 문화 자원은 과거의 표상이지만, 전통 가치의 현대적 재발견·재생산과 미래 가치를 발굴하는 보고임.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테제 하에서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함.
- 1980년대 후반 이후, 전통문화 생활화·현대화·산업화가 정부 문화 정책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시책들이 대두함.
- 인문학 역시 정부의 전통문화 정책과 결합되면서, 문화 정책의 정합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문화 자원으로써 옛집

- 문화 자원에 대한 인문적 재생산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임.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산재한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그 인문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적실한 방법이 될 것임.
-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가 담긴 옛집과 옛집의 한자 기록물들은 대표적인 인문 자원으로써 재생산 가치가 높음.
- 옛집과 옛집의 중요 구성물인 한문 기록 편액·주련·시문판 등은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보고임.
- 이들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는 작업은 새로운 인문 자원 발굴과 함께 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방법이 될 것임.

2) 이 내용은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 제2차 학술대회 발표자였던 이상열 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원고에 힘입은 바 크다.

○ 전통문화 정책 지향과 문화 융성위원회 활동

- 2000년대 후반 이후 정부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음. 국정 과제의 창의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 콘텐츠 개발과 인적자원 확충을 도모함.
- 2012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류 3.0’ 정책이 집행됨. 특히 전통 한류는 전통문화 육성과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 이를 글로벌화함을 의미함.
- 2013년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융성위원회를 조직하고, 8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음. 추진 과제 중 인문정신문화·지역문화·전통문화는 핵심 영역으로 설정됨.

〈한류 3.0의 의미와 범위〉

구분	의미	범위
한류	▶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세계인과 공감하는 K-Culture - 결과와 양태는 한국 것(K-Style)을 지향	한국문화 일반
전통 한류	▶ 전통문화의 발전과 글로벌화 - 전통문화 육성 - 전통문화 현대적 해석 - 첨단기술 융합	전통 문양·디자인·공간, 한지, 한복, 한글, 고택, 전통문화교육, 국악, 전통문화마을, 전통문화축제 등
현대 한류	▶ 순수예술의 독창성과 글로벌화 - 순수 예술의 창작역량 강화 - 순수 예술 저변과 교류 확대	조형, 공연(제작노하우, 기술), 전통 예술, 건축, 디자인, 문학, 출판, 공예, 민속 축제, 아시아 문화, 스포츠 등
한류 산업화	▶ 문화콘텐츠의 지속 성장 -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육성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산업, 캐릭터, 콘텐츠 기술, 패션, 방송 영상, 문화상품, 관광 등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문화진흥단

○ 전통문화 정책 집행 양상

- 「한(韓)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은 2000년대 후반 전통문화 정책의 근간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국악을 6대 분야를 지원함.
- 한옥 분야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이 협력하여 한옥 건축 활성화 기반 조성, 한옥 세계화 추진을 목표로 설정함. 이는 옛집 한자 기록물 관련사업과 연계됨.

〈한스타일 한옥 분야의 주요 사업 내용〉

과제	관계 부처	주요 사업
전통 한옥건축의 보존·관리 및 활용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민속문화재 보존·관리 ▶ 중요민속문화재 관광자원 활용기반 지원 ▶ 전통한옥의 보존관리 ▶ 전통한옥 관광자원 활용 ▶ 한옥 체험교실 운영 ▶ 전통한옥 건립 및 한옥수선 등 지원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개정추진 ▶ 자치단체 한옥지원 조례 제정
한옥건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건축 전문인력 양성 ▶ 전문교육과정 개설 ▶ 건축관련 학과 교육 확대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 한옥도시건축 지원 ▶ 한옥마을 조성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및 한식 주거문화 홍보 지원 ▶ 국제교류 지원 ▶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Ⅲ. 사업의 개요

1. 사업 의의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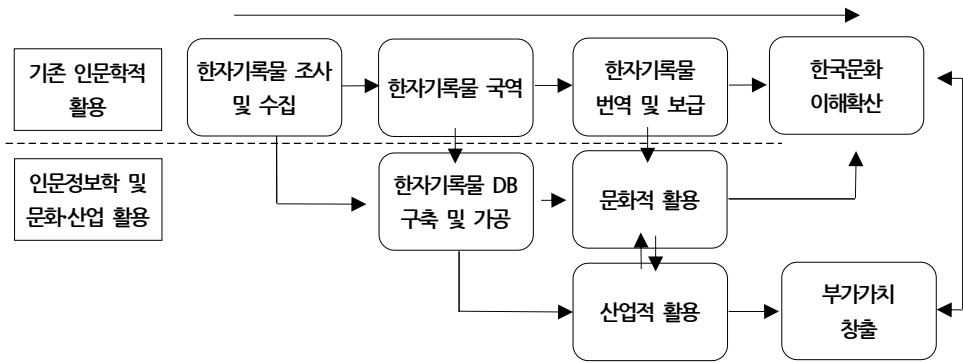
- 무형 자산의 활용성 증가
 -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 문헌 자료가 국역되었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음. 인기 문학·드라마·영화 소재거리들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이 무형 자산의 활용성 및 중요성 증가를 방증함.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 역시 무형자산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한옥 문화재 관련 사업의 의의
 - 문화재 보존 방안 제시
 - 전통 건축 문화의 국가 브랜드화

- 우리 건축 및 주거 문화에 대한 인문적 이해 심화
- 옛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 및 문화정체성 제고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의 의의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은 인문 전통문화 발굴만이 아닌, 다양한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 기인함. 옛집 한자 기록물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국역하는 과정에 집중함.
- 한자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콘텐츠 제작자, 창작 소재를 필요로 하는 작가 등 수요자들의 활용을 용이케 함.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은 인문학적 활용과 문화·산업적 활용의 경계 지점에 있음. 현재 옛집 콘텐츠에 대한 조사·활용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활용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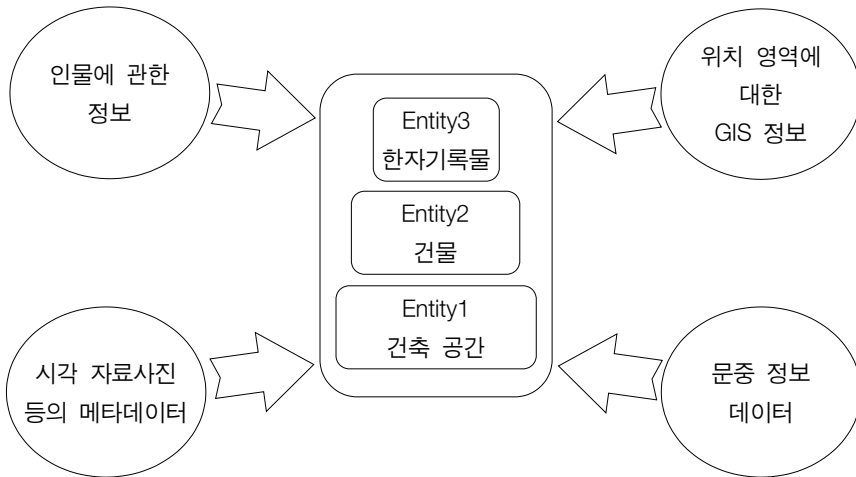
2. 사업 방법과 내용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 방법

- 답사를 통한 텍스트·사진·영상 자료 등 현장 자료 종합. 기록물 입력·탈초·국역을 통한 텍스트 자료 구축
- 고건축학, 한문학, 인문정보학, 역사민속학, 서체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확보
- 한문학, 고건축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번역팀과 답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집행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 내용

- 사업기간 : 1단계 3년(2013.2~2015.12)
- 시행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사업내용: 한국 옛집 관련자료 입력·번역 및 DB 구축사업
- 사업대상: 민간 고건축물(고가·사묘·재실 등) 중 국가지정문화재(266건), 시도 지정문화재(1,659건)에 부착된 한자 기록물 전체(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1,234건)
- 결과물 : 번역 및 원문 텍스트 약 50,000매, 사진 약 50,000점, 영상 약 300점
- DB구축 방법 및 내용 : 국내외 이용자를 고려한 전자정보로서 데이터 구축함. XML변환을 위한 템플릿 형태의 원고생산과 계층적인 DB구축 사업완료 직후 결과물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제공



3. 사업 실적과 성과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

- 1차년도(2013년) 결과보고서

2013년 결과보고서 (총 3,363쪽)		
1권	충남	668쪽
2권	충북	825쪽
3권	강원도	910쪽
4권	서울, 인천, 경기, 제주, 대전, 세종, 제주	960쪽



- 1차년도(2013년) 사업추진 세부 사항
 한자 입력 원문 총 2,308매, 번역문 총 7,764매, 사진 8,637매, 파노라마 275건,
 동영상 141건, 조사표 498건

지역	한자기록물				이미지 수량			조사표	
	편역	주련	신문판	기타	사진	파노라마	동영상		
지역 A	서울	8	16	5	1	160	0	0	64
	인천	19	35	8	1	143	3	0	9
	경기	48	26	34	2	1,020	12	8	51
	강원	96	239	359	34	1,528	65	17	82
	제주	5	0	0	0	440	0	1	22
	소계	176	316	406	38	3,291	80	26	228
지역 C	대전	62	61	91	8	459	19	4	24
	세종	10	0	11	4	140	3	3	7
	충남	187	282	177	38	2,380	62	54	120
	충북	131	130	252	20	2,367	111	54	119
	소계	390	473	531	70	5,346	195	115	270
합계	566	789	937	108	8,637	275	141	498	

- 2차년도(2014년) 결과보고서

2014년 결과보고서 (총 3,466쪽)		
1권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김천, 문경, 울릉, 울진, 의성	616쪽
2권	봉화, 상주, 성주, 청도	682쪽
3권	영덕, 양양, 영주, 영천	559쪽
4권	예천, 청송, 칠곡, 포항, 대구	599쪽
5권	안동	501쪽
6권	안동	509쪽



- 2차년도(2014년) 사업추진 세부 사항

한자기록물 원문 총 4,293매, 번역문 총 15,024매, 사진 13,448매, 파노라마 135건, 동영상 163건, 조사표 468건

지역	한자기록물				이미지 수량			조사표	
	편액	주련	시문판	기타	사진	파노라마	동영상		
지역B 경북	경산	2	0	6	0	81	0	0	2
	경주	88	10	56	3	567	4	1	26
	고령	16	0	7	0	294	1	1	5
	구미	25	0	3	1	393	1	2	13
	군위	5	4	9	0	86	0	1	2
	김천	0	0	0	0	31	0	0	1
	문경	18	4	3	6	197	3	4	10

지역	한자기록물				이미지 수량			조사표	
	편액	주련	시문판	기타	사진	파노라마	동영상		
봉화	65	9	30	16	682	25	24	43	
상주	35	18	14	3	292	7	7	13	
성주	59	36	31	10	790	1	5	22	
안동	231	74	159	54	3,115	29	28	122	
영덕	46	0	11	11	1,988	11	38	46	
영양	15	0	2	9	81	0	1	23	
영주	31	0	27	9	826	4	2	25	
영천	42	12	24	2	616	1	1	16	
예천	37	25	13	15	1,120	26	25	25	
울릉	0	0	0	0	118	0	0	4	
울진	2	10	15	0	105	2	2	2	
의성	9	4	12	5	212	3	2	7	
청도	16	0	30	5	285	1	1	10	
청송	23	8	20	3	528	1	4	15	
칠곡	12	0	4	0	239	2	1	6	
포항	22	0	23	6	210	10	11	12	
지역B 대구	대구	49	10	38	9	592	3	2	18
합계		848	224	537	167	13,448	135	163	468

－ 3차년도(2015년) 결과보고서

2015년 결과보고서 (총 4,063쪽)		
1권	부산, 울산, 경남	656쪽
2권	경남	873쪽
3권	경남	719쪽
4권	광주, 전남	609쪽
5권	전남	584쪽
6권	전북	622쪽



- 3차년도(2015년) 사업추진 세부 사항
한자기록물 원문 총 3,507매, 번역문 총 9,876매, 사진 12,884매, 파노라마 47건,
동영상 22건, 조사표 436건

지역	한자기록물				이미지 수량		동영상			조사표	
	편역	주련	시문판	기타	사진	파노라마	건	시간(초)	크기(MB)		
경상 남도	거제	0	0	0	0	31	0	0	0	0	1
	거창	64	41	70	14	772	3	2	146	422	23
	고성	20	34	31	9	526	1	3	234	668	12
	김해	34	44	32	0	209	2	0	0	0	7
	남해	18	8	9	3	141	1	1	57	166	4
	밀양	54	16	54	7	652	3	1	52	148	28
	사천	5	9	2	2	88	0	0	0	0	2
	산청	31	32	50	8	705	3	1	65	163	21
	양산	7	0	0	0	60	0	0	0	0	3
	의령	19	5	26	6	465	0	0	0	0	17
	진주	69	79	75	5	670	2	2	475	1,374	16
	창녕	15	15	5	3	330	1	0	0	0	8
	창원	4	13	20	3	74	2	0	0	0	3
	통영	17	10	5	0	124	0	0	0	0	5
	하동	25	8	53	13	325	3	2	155	431	9
	함안	17	6	37	9	167	5	1	45	132	6
	함양	14	14	4	14	297	1	0	0	0	10
합천	46	31	38	5	462	1	1	70	201	18	

지역	한자기록물				이미지 수량		동영상			조사표	
	편액	주련	시문판	기타	사진	파노라마	건	시간(초)	크기(MB)		
부산	동구	1	0	0	0	16	0	0	0	0	1
	동래	6	6	5	2	45	0	0	0	0	2
	사하	0	0	0	0	7	0	0	0	0	1
	수영	4	0	0	0	14	0	0	0	0	1
	해운대	5	10	0	0	39	0	0	0	0	1
울산	북구	1	0	0	0	24	0	0	0	0	1
	울주	12	0	1	0	125	0	0	0	0	3
	중구	0	0	0	0	18	0	0	0	0	1
소계	488	381	517	103	6,386	28	14	1,299	3,705	204	
전라 남도	강진	10	21	4	5	183	1	0	0	0	6
	고흥	18	41	9	4	168	2	0	0	0	7
	곡성	24	47	23	7	277	1	0	0	0	8
	광양	0	0	0	0	19	0	0	0	0	1
	구례	7	2	0	0	105	0	0	0	0	3
	나주	9	14	14	0	265	0	1	142	371	13
	담양	6	0	8	7	246	2	0	0	0	10
	목포	3	0	0	0	51	0	0	0	0	2
	무안	0	0	0	0	36	0	0	0	0	1
	보성	8	13	0	7	223	1	0	0	0	10
	순천	17	57	6	10	276	0	0	0	0	17
	신안	0	0	0	0	14	0	0	0	0	1
	여수	5	0	2	0	91	0	0	0	0	3
	영광	13	52	2	2	114	0	1	111	321	5
	영암	14	8	2	6	227	0	0	0	0	12
	완도	8	0	0	0	126	0	0	0	0	1
	장성	2	0	3	6	90	0	0	0	0	4
	장흥	27	25	64	12	334	2	2	180	515	11
	함평	1	0	2	8	130	0	0	0	0	4

지역	한자기록물				이미지 수량		동영상			조사표	
	편액	주련	시문판	기타	사진	파노라마	건	시간(초)	크기(MB)		
해남	14	20	8	7	262	0	0	0	0	7	
	6	12	4	15	224	2	0	0	0	8	
전라 북도	고창	12	68	24	10	434	0	0	0	9	
	군산	2	0	0	0	76	1	0	0	3	
	김제	3	13	4	4	172	0	0	0	7	
	남원	23	41	4	15	395	3	1	86	249	15
	부안	7	0	1	0	140	0	0	0	0	5
	순창	7	6	0	0	85	0	0	0	0	2
	익산	8	36	11	0	204	0	1	66	192	6
	임실	3	4	1	2	76	0	0	0	0	3
	장수	18	23	13	6	301	1	1	69	201	10
	전주	11	14	2	12	228	1	0	0	0	6
	정읍	10	30	13	17	387	0	0	0	0	12
	진안	4	0	8	3	39	0	0	0	0	1
광주	광산	14	33	13	11	184	0	0	0	0	6
	남구	14	6	3	5	145	1	1	106	252	7
	동구	0	0	0	0	15	0	0	0	0	2
	북구	4	20	3	0	78	0	0	0	0	2
	서구	8	22	0	3	78	1	0	0	0	2
소계	340	628	251	184	6,498	19	8	760	2,101	232	
합계	828	1,009	768	287	12,884	47	22	2,059	5,806	436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 웹 서비스
 - 한민족정보마당(kcult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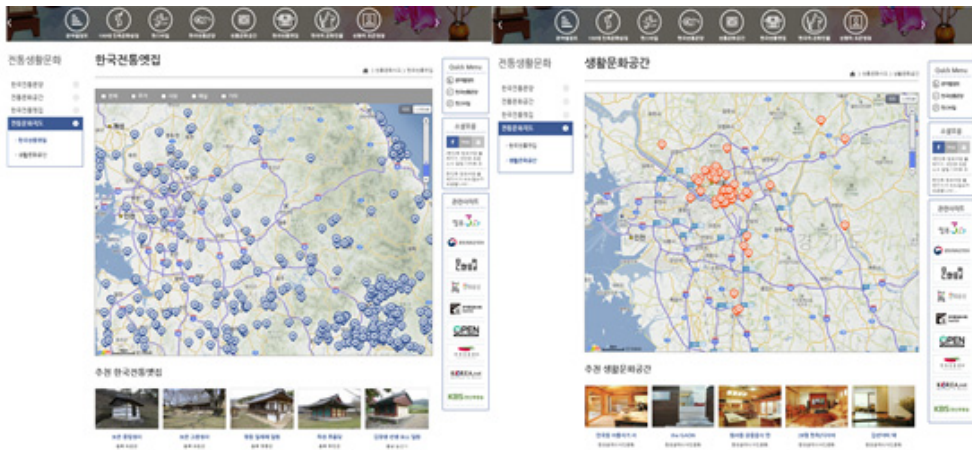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시범 DB 구축사업으로서 한민족문화아카이브 사이트에 공개됨.

1차분(2014년 12월 완료)	2차분(2015년 10월 완료)	3차분(2016년 10월 예정)
충남, 충북, 강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제주	경북, 대구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

- 하이퍼미디어를 적용하여 옛집에 관한 지리 정보와 생활 문화 정보 등을 정합적으로 시현함.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의 성과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 활동 홍보





한옥 소식

뉴스 및 행사

뉴스 및 언론보도

▶ 행사 및 세미나

정책 뉴스

연구자료 및 출판

한옥 탐진

뉴스 및 행사

[학술대회]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의 다각적 활용방안

작성일 : 2014-06-29

조회수 : 1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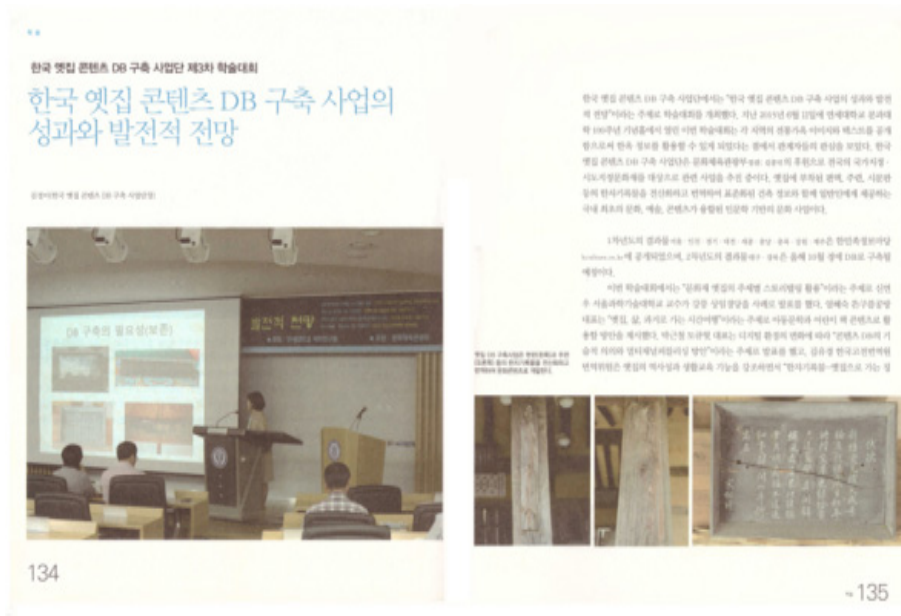
- 세계일보 · 교수신문 · 한국연구재단 · 연세소식 · 『한옥문화』 등에 보도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의 의의와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한옥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의 다각적 활용방안

한옥문화 (2013 여름호, 통권 31호)

『한옥문화』(2013 여름호, 통권 31호)



『한옥문화』(2015 여름호, 통권 38호)

－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2013년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의 의의와 활용 방안」 제1차 워크숍



2014년 「한국 옛집 콘텐츠 DB구축 사업의 다각적 활용 방안」 제2차 학술대회



2015년 「한국 옛집 콘텐츠 DB구축 사업의 성과와 발전적 전망」 제3차 학술대회

IV. 향후 사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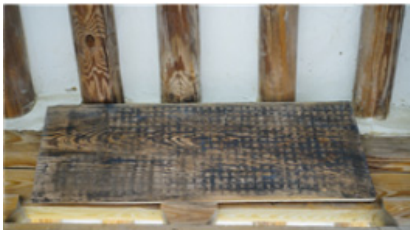
1. 사업 가치 제고

○ 옛집의 가치 제고

- 1단계 사업(2013년-2016년)은 옛집 콘텐츠 DB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향후에는 옛집 콘텐츠 DB 증량과 옛집 가치를 격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옛집을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닌, '다양한 가치가 있는 집'으로 제고할 것임.
- 따라서 2단계 사업에서는 옛집 콘텐츠 DB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함.

○ 한자 기록물의 가치 제고

- 옛집 한자 기록물은 단순히 '포장된 전시물'이나, '방치된 낡은 것'이 아닌, 과거와 소통하는 창으로 제고할 것임.
- 옛집 한자 기록물은 문집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한자 기록물이 만들어졌던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 문화를 생생하게 고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과정에서 옛집 한자기록물 훼손상태를 확인함. 2단계 사업과정에서는 옛집 한자 기록물 보존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전북 정읍 무성서원 기록물



경북 청도 윤강고택 및 만화정 기록물



전남 해남 정운충신각 기록물



경북 경주 단계서당 기록물

- 전수조사와 국역된 기록을 지역별·주제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윤문 작업도 병행 되어야 함.

2. 사업 추진 방향

○ 2단계 조사 계획

- 1단계 사업에서 누락되었던 조사 대상은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계획임.
고가·사묘·재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향촌 누정·각·당·서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옛집 콘텐츠 DB를 증량할 계획임.
- 1단계 : 완료 2단계 : 예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국 가 지 정 문 화 재	고가	14	0	3	0	0	1	2	0	8	8	16	14	7	34	63	12	5	187
	사묘 재실	3	0	0	0	0	0	1	0	0	0	1	0	2	1	5	5	0	18
	누정 각당	2	0	1	0	0	0	0	0	0	3	3	1	3	9	19	5	1	47
	서원 서당	0	0	2	0	0	0	0	0	0	0	0	3	1	1	9	1	0	17
소계	19	0	6	0	0	1	3	0	8	11	20	18	13	45	96	23	6	269	
시 도 지 정 문 화 재	고가	29	0	4	5	8	6	0	4	23	44	30	40	25	34	228	68	9	557
	사묘 재실	5	5	6	4	8	7	4	1	15	11	45	60	33	57	121	87	2	471
	누정 각당	10	4	9	5	11	7	0	1	12	18	25	21	36	39	128	82	4	412
	서원 서당	0	0	5	1	1	2	0	1	13	4	8	20	26	16	68	50	0	215
소계	44	9	24	15	28	22	4	7	63	77	108	141	120	146	545	287	15	1,655	
총계	63	9	30	15	28	23	7	7	71	88	128	159	133	191	641	310	21	1,924	
비율(%)	3.3	0.5	1.6	0.8	1.5	1.2	0.4	0.4	3.7	4.6	6.7	8.3	6.9	9.9	33.3	16.1	1.1	100	

○ 조사 범위 확대

- 향후 비지정문화재 옛집 약 4,333건 역시 전수 조사하여 DB화할 계획임.
- 옛집 한자 기록물 역시 문집에 소개된 것들을 발굴하여 DB로 구축할 계획임.
- 옛집 한자 기록물 복원 작업과 함께, 특정 지역 옛집 복원할 계획임.
- 민간·문화교류 차원에서 북한 소재 옛집 조사 시도할 계획임.

3. 사업 활용 방안

○ DB 접근성 모색

- 옛집 QR코드 부착 사업 전국적 추진. 전국 문화재 안내판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를 준용하여 옛집 한자 기록물에 관한 국역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내용을 간편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QR코드를 통해서 옛집 한자 기록물 국역 정보 제공. QR코드는 공간 제약성이 없음. 따라서 기존 설명문과 안내판에 제시하기 어려운 방대한 정보들도 제공 가능함.
-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축적된 옛집에 관한 제반 정보는 옛집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QR코드가 부착되지 못한 옛집들이 다수 존재함. 2단계 사업 과정에서 QR코드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DB 활용성 모색

- 옛집 제반 DB를 개방하고, 통합검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산 중복 방지와 활용성 확장을 모색함.
- 옛집 제반 DB를 유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한국고전종합DB 등이 주요 연계대상임.
- 옛집 제반 DB를 교육 자료,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도록 모색함. 각종 아카이브에서 옛집 제반 DB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원천자료로서 활용성을 제고함.



헤리티지 채널을 통한 옛집문화재 홍보(www.heritagechannel.tv)



문화재청 모바일 서비스(m.cha.go.kr)



국가자원공유포털(Data.go.kr)

○ DB 재생산 모색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에는 옛집에 대한 세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한 실정임. 사업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과 감성코드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함.
- 국고문헌·민간편찬 일기류·문학작품·설화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스토리 창작 기반을 완성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이들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문화 종합정보 서비스인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에 통합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임.
- 한국 지역 전통 건축문화의 국가브랜드화. 지역·주제별 문화관광산업 기반 마련, 한옥 활성화와 한국적 공간 창조, 옛집 강좌와 답사, 한옥 체험 프로그램 정보 제공, 국내외 관련 기관에 콘텐츠 제공,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자 참여 유도 및 홍보, 유네스코 유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자료 제공.
- 글로벌 콘텐츠로서 문화·산업적 활용 모색. 문화콘텐츠로서 다양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건축·주거·서예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초자료 제공. 나아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상품으로 제공함.
- 옛집 문화 탐색 작업은 건축학과 인문학의 융합 가능성 제시함. 현존 옛집에 대한 건축·인문학적 지식 제공.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 근거자료 제공.

V. 사업의 성과

1. 옛집 기록물 재발견

○ 한자 기록물 의의 정립

- 조선시대 시문판을 포함한 옛집 한자 기록물은 집주인이 객들과 소통하는 장치로서 보편적인 것이었음. 당대 한자 기록물들이 현대까지 보존되어야만, 문화재로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음.

○ 한자 기록물 관리 착수

- 옛집 한자 기록물은 제작 현장에 보존되어야 유의미함. 다만 관리 소홀과 풍파로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보호 조치가 필요한 기록물을 분류함. 조사단계에서 소장자에게 국공립 박물관에 위탁할 의사를 타진하거나, 기증을 유도함.
- 수집된 기록물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박물관에 전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해야 함.
- 기증자들에게는 기증품을 복제 또는 모사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장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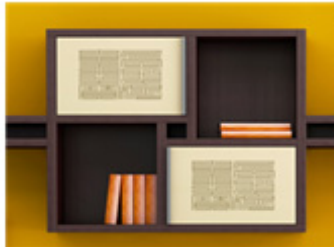
〈고건축 한자기록물을 수집·전신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전시관〉



2. 옛집 콘텐츠 재생산

○ 인물별 서체 및 전통문양 개발

- 한자 기록물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필체가 반영됨. 편액·현판·주련에는 각종 재료를 활용하여 작자가 친필을 남김으로써 작자의 문체가 각자됨.
- 인물별 서체를 분류함으로써 한자폰트를 개발할 수 있음. 이를 활용하여 편액제작, 공예품 문양과 무늬에 준용할 수 있음.
- 전통문양 발굴과 활용은 1990년 문화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음.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에서 조사된 기록물 중에도 독특한 문양·무늬가 있는 기록물이 다수 존재함. 이들은 텍스타일 디자인, 공예품, 생활품 디자인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현대 한옥 건축물에 준용

- 근래 Well Being에 대한 수요증가로 한옥 산업 규모가 확장됨. 한옥 결구법 개발 등 기술적 현대화와 표준화가 추진됨.
- 아쉬운 점은 전통적 생활양식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인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임.
- 현대 건축된 한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한자 기록물을 선별하고, 제시해야 함.
- 수집된 시구·문구 분류와 편액·주련 등의 모양·재질·크기에 관한 표준 모델이 제시되어야함.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고 플랫폼을 제공해야 함. 한옥건축 박람회, 공예트렌드 페어와 연계한 장식물 공모전, 전시회 개최도 고려해야 함.

〈예술적 가치를 지닌 현판 예시〉



- 선별된 기록물 정보는 한옥 건축주나 한옥마을 조성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래 완성된 한옥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함.

3. 지역 인문전통 계승

○ 지역 역사·전통문화 발견

- 옛집 한자 기록물들은 해당 지역 역사, 지역 사람·문중의 생활 문화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예시	파평 윤씨 옛집 한자 기록물	은진 송씨 옛집 한자 기록물
장소	충남 논산 노성면	경기 광주시 회덕
내용	파평 윤씨 재실에는 「종약(宗約)」을 기록한 편액이 있어서 해당 문중의 생활상을 추적할 수 있음.	쌍청당과 금구궁당은 1432년 이해 500여년 전승되며 93년마다 중수됨. 송상정이 작성한 「쌍청당중수기」에는 가문의 자부심이 담김.

- 옛집 한자 기록물에는 문헌 자료로 남지 않은 내용들이 발견되기도 함. 작성될 당시 상황과 지역 내의 네트워크가 드러나기도 하고, 존재가 요원한 지명이 명시되기도 함.
- 예컨대 충남 괴산 애한정(愛閒亭)에는 김득신이 1675년 기록한 시문판이 있음. 해당 시문판은 괴강 포구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지역 사회경제상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창작 소재로 활용성이 높음.

○ 지역 역사 공간 재구성

- 옛집 상태를 보존하되, 파생적 창작물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격상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함.



〈경기 양평 석창원에 세워진 사륜정〉



〈이규보 사당에 걸려있는 「四可齊記」 기문〉

○ 옛집 인문관광 개발

- 옛집 제반 DB는 인문관광 탐방로나, 체험 프로그램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인문관광 탐방로 개발은 관광산업의 개발논리보다, 인문학적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함.
- 지역 인문자원에 착안한 지역 탐방로는 이미 다수 존재함. 예컨대 충남 홍성의 '홍주성 천년 여행 길', 안동의 '예던길', 산청·하동의 '백의종군로' 등이 있음.
- 옛집 지도를 제작하여 지역별로 권역화함으로써 '옛길 탐방길'을 개발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옛집 탐방길'이 마련된다면, 주목받지 못했던 옛집들도 관심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음.
- 옛집 한자 기록물 정보와 인문들의 삶을 지리정보로 결합한 '디지털 한시 지도'나 '문학지도'개발 또한 가능함.

〈대전 지역의 옛집 권역화〉

- 옛집 탐방길의 형식 : △△-△△ 옛집길
- 대전 동북권 옛집 탐방길 이름 : '옥류각-삼매당 옛집길'
- 대전 동북권에 있는 옛집들 : 옥류각(玉溜閣), 제월당(霽月堂), 쌍청당(雙淸堂), 동춘당(同春堂), 송용역가옥, 삼매당(三梅堂)

○ 옛집 이름 붙이기

- 옛집 조사대상 중 이름이 없는 건축물도 있음. 편액이 없는 경우 집에 살았던 사람 이름이나, 지역 명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편액이 있는 경우는 그 명칭을 차용해야 함.
- 예컨대 '한성이씨 대산종가'보다는 편액에 기록된 '만수재(晩修齋)'라는 명칭이 어울릴 것으로 판단됨. '만수재' 편액은 대산 이상정이 자신을 부르던 호에서 차용한 것임. 따라서 지역명칭을 준용한 '대산종가'보다는 '만수재'가 의미 있음.

〈안동의 한성이씨 대산종가에 걸려 있는 편액〉



VI. 결과물의 활용 방안

1. 결과물의 의의와 기대효과

○ 결과물의 의의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사업은 조사와 국역을 통해 과거에 이루어진 다양한 사건, 인물의 삶, 이야기로서 지역 전통 문화 진흥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된 옛집 관련 인문지식 정보의 질과 양을 뛰어 넘어 옛집의 곳곳에 남겨진 기록물의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여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음.
- ‘한국 옛집 콘텐츠 DB’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한국 전통 가옥이 어 떠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건축, 유지, 보존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감상하고, 전통의 가치와 인문정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저작물임.
- 이미지 자료와 기록물을 활용해 개발된 인문학 기반의 콘텐츠로서 다양한 문화적·산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한국 옛집 콘텐츠 DB’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재청이나 ‘대한민국구석구석’, ‘한국민속신앙사전’ 등과 비교해 볼 때 ① 지도와 GIS 정보를 이용한 공간적 지리정보 제공 ② 사진, 동영상, 파노라마 등 시각적 현장 자료 ③ 대상 전통 가옥에 걸려 있는 현판이나 주련, 시, 중수기, 중건기 등의 한문을 전수 번역한 점 등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지님.
- 1,300여 개의 가옥에 대하여 전문성, 다양성, 정확성, 정보 간 연계성 등을 지닌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음.
- ‘한국 옛집 콘텐츠 DB’를 국가 및 타기관의 관련 DB와 연계함으로써 한국문화 종합정보서비스인 ‘한민족문화아카이브’ 구축에 통합 네트워크화할 수 있음.
-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DB,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DB, 한국고전번역원의 문집총간 DB 등 한국의 대표적 역사문화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옛집 콘텐츠 DB’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 DB,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구비문화대계,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스토리 창작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2. 출간 및 인문스토리 관광사업

- 『인문가치를 찾아 떠나는 한국 옛집 기행(가칭)』 Paper Book과 E-Book 발간
- 한국 전통가옥의 문화유산에 담긴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함으로써 고전의 현대적 번역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를 도모함.
- 고택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편액에 쓰여진 서너 글자로 뜻을 헤아리다가 가옥 외관만 둘러보고 가는 현실임. 주요 가옥에서는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콘텐츠 구성상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광객들이 옛집이 지닌 내적인 문화가치를 직접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에서 번역한 옛집마다의 편액, 주련, 시문판, 중건기, 중수기 등의 내용을 이야기 창작 기반으로 확충, 가공하여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수행하고, 인문학 여행을 위한 스토리북으로 제작함.
- 사업 결과물
 - 한글판 Paper Book과 E-Book의 2종으로 제작, 출판
 -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Paper Book과 E-Book의 2종으로 제작, 출판
- 기대효과
 - 한국 및 외국 관광객들의 한국 옛집 방문 시 스토리북을 통해 옛집의 문화가치를 충분히 향수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제공함.
 - 스토리북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옛집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문 스토리 관광사업의 시행 기반을 마련함.
 - 한국 옛집의 인문학적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함.
 - 차세대 인문정신 함양을 위한 인문교육 콘텐츠로 활용함.
- 『인문학 콘서트와 함께 하는 한국 옛집 기행(가칭)』
- 한국 옛집을 생활·교육·의례·풍류 공간으로 묶은 권역별한옥스테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관광내수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한국 관광 실현의 기반을 마련함.

○ 현재 다양한 문화가치가 확산되고 있어 차별화된 문화가치를 추구하는 관광객들은 국내 여행사를 통한 국내 단체 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문화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고품격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 내수활성화를 꾀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의 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인문가치를 찾아 떠나는 한국 옛집 기행(가칭)』 Paper Book과 E-Book에서 개발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활용해 토크 인문학 콘서트, 체험 중심의 이벤트, 퍼포먼스 등을 포함한 팸 투어를 시행함.
-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옛집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인문 스토리 관광사업을 실시함.
- 각 지역 소재 대학의 역사문화 교양강좌·평생교육원 강좌·외국 유학생 교육강좌, 문화원의 탐방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시행함.
-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테마를 가진 국내 여행 및 외국인 관광 상품을 개발함.

○ 사업 결과물

- 특화된 한국 옛집 토크 콘서트 및 여행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 권역별로 시범 여행 실시 후 확산 보급함.

○ 기대효과

- 고품격 문화가치를 추구하는 여행객의 그룹투어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 문화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집이라는 테마로 여가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어 3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간 소통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인의 가치의식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글로 번역된 기록물 정보 및 주요 인물의 삶을 지리정보와 결합하고, 옛집 지도를 문화지도나 디지털한시(漢詩)지도, '생생문화재지도' 등에 자료로 제공하는 작업을 부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문 스토리 관광사업을 활성화함.

○ 관련 외국 사례 : 영국의 블렌하임 팰리스 치칠 생가 투어 프로그램



○ 차세대 재외동포 인문·정신문화교육 강좌 『한국의 옛집(가칭)』 개설 및 교재 제작 보급

○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인문·정신문화를 알릴 교육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 제작 보급

○ 재외동포,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는 한류 확산에 있어 0순위 actor임.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문·정신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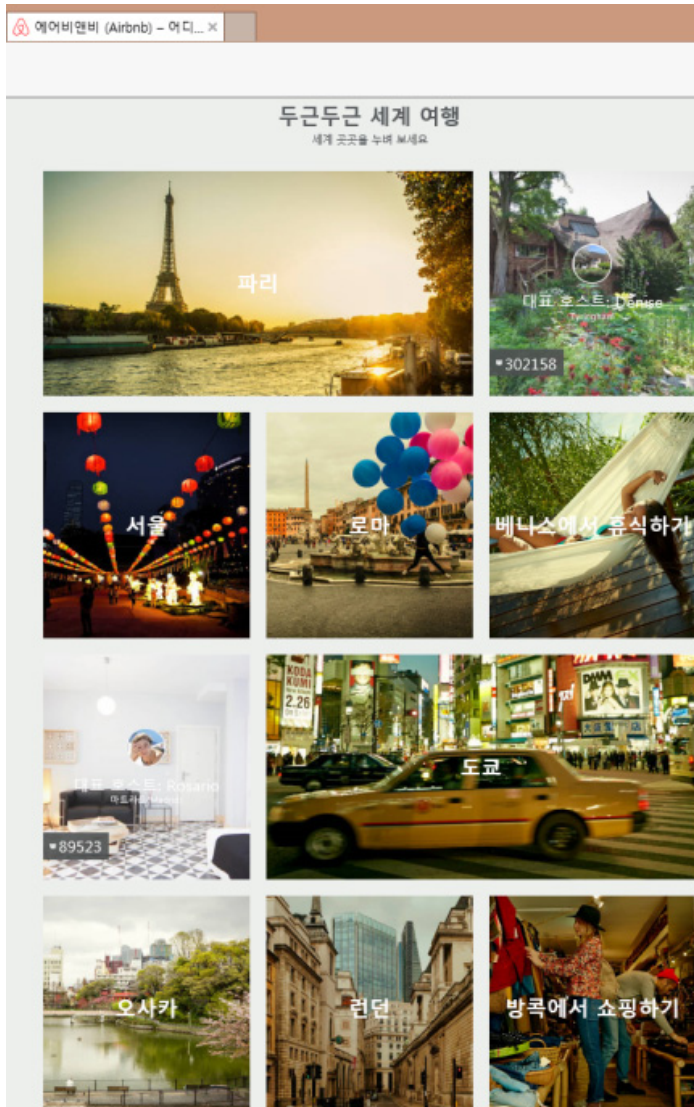
- 현재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교육은 교육부(국제교육원), 외교부(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 외교부 산하 교육기관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시행 중인 문화교육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음.

○ 사업 내용

-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옛집 속의 한시 소개 등 <한국 옛집 콘텐츠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쉬운 내용으로 가공하여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차세대 재외동포의 인문·정신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 보급함.

- 한자문화권을 대상으로 한국의 한시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을 개발하고, 한자를 모체로 하는 이들에게 익숙한 고사나 인물의 글귀를 인용한 한시, 3국 공용한자가 다수 포함된 한시, 한국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시 등을 소재로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수학습매체를 개발함.
- 사업 결과물 :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에 『한국의 옛집(가칭)』 관련 강좌 개설 및 교재 제작 보급
- 기대효과 : 차세대 재외동포의 인문·정신문화 교육을 통해 한류를 확산함.
 - 재외 한국문화원이 외국의 한국학 관련 기관 등과 링크해 외국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에 홍보, 보급함으로써 한국문화교육 교재로 활용함.
- 고택 숙박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 한국 옛집 DB 구축 사업 콘텐츠를 활용하여 고택·종택으로 특화된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을 시행함.
- ‘한국 옛집 콘텐츠 DB’를 기반으로 고택 정보 VD로 실용화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고택 소유주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 사업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함.
- 사업 결과물
 - 『재미있는 한옥 미션』, 『집을 통한 한반도 읽기(가칭)』 모바일 앱 구축
 - 고택 소유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 사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
- 기대효과
 - ‘한국 옛집 콘텐츠 DB’에서 제공되는 옛집 지도와 정보는 현재 한옥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정보기술력과 숙박 서비스 문제점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줌.
 - 고택 소유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숙박공유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문화재를 매개로 지방정부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

- 관련 외국 사례 :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숙박공유서비스 회사인 Airbnb



- 숙박공유 서비스업체로 1,500여개 한옥을 연결시키고 있는 코자자(www.kozaza.com)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국 옛집 콘텐츠 DB'의 옛집 지도와 정보,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는 투어가이드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음.

3. 협업 활용 방안

- 옛집 홍보
 - 동영상, 이미지, 스토리 등으로 활용 가능한 채널을 통해 홍보함.
- 옛집 관련 정보서비스에 반영
 - 기존의 옛집 정보에 정확하고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함.
- 영상자료에 수화, 자막, 음성서비스를 반영하고 QR코드와 연계하여 대국민서비스 실시
- 각종 모바일 서비스에 탑재하여 디지털 콘텐츠 확충
 - 유관기관의 대표모바일, 앱 서비스에 연동하여 추가서비스를 실시함.
- 국가기록유산포털과 국가문화유산포털에 탑재하여 정보 공유
-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방문 단체, 각급 학교, 문화체험교실 운영 단체 등에 결과물을 제공하여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함.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데이터포털/디지털도서관/학술정보원등
- 국가지식DB 및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
 - 국가공유자원포털(Data.go.kr) 등에 업로드하고 시맨틱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지식정보자원의 전자적 공유체계를 구축함.
- 오리지널 소스 및 정보화 결과물의 개방 활용
 - 문서 수량과 기본 정보만을 보존하는 일반 DB에서 벗어나 인문-건축적 비주얼 데이터로서 테마지식 및 지식백서 등 양질의 콘텐츠로 제공함.

- 기관별 네트워크로 통합검색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중복투자 방지
 - 각 주요대학 학술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규장각,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대 남명학연 구소 등과 연계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자료의 원스톱 검색시스템을 구축함.
- 국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
 - 온라인을 통해 한자기록 문화유산의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사용성과 간편성을 도모함.
- 모바일·스마트폰 등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 서비스 강화
- 옛집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성을 극대화
-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문화시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상시 활용 방안

- 한옥사업, 공예문화산업 매뉴얼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 한국 옛집 DB 구축 사업 콘텐츠인 옛집의 편액, 주련, 시문판의 예술적 모티브를 산업 매뉴얼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예시) 생활용품 및 홍보물



- 한자기록물에 쓰여진 서체에 대한 체계적 분류로 관련 후속 사업 추진
 - 다양한 폰트 개발, 서각을 포함한 목공예, 한지공예 산업체와 연계함.
 - 이를 텍스타일·공예품·생활용품 문양 디자인 개발 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체육관광 부의 누리집에 탑재된 전통문양 콘텐츠로 제공함.

- 건축문화유산 복원, 신한옥 건축에 필요한 편역 제작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음.
- 디지털 자원화와 스토리텔링화 등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활용함.
 - 콘텐츠 제작자, 창작 소재를 필요로 하는 작가 등 실수요자들이 한자 기록물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적 활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함.
 - 한자기록물의 인문학적 활용과 이를 DB화하는 디지털인문학적 활용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보다 풍부하게 축적함.
 - 이야기 창작 소재가 필요한 수요자들은 기록물의 내용과 그 이면에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감성코드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옛집 콘텐츠 DB의 사진들을 기초로 훼손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조사단계에서부터 소장자에게 국공립박물관에 위탁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수집된 기록물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박물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성과 활용성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증자들에 대해서는 기증품을 복제하거나 신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한국의 옛집과 지역, 해당 가옥에 거주했던 주요 인물정보, 문중 문화, 가문의 자손 교육 등 언어, 역사, 문학, 전통문화 등의 의 편찬 방식으로 <한국옛집사전대계>를 기획할 수 있음.
- 문체부, 학교, 문화관련기관의 문화교육사업 교재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야기할머니사업’ 및 한국중앙박물관, 한국한글박물관, 한국역사박물관의 교육사업에서 교육콘텐츠로 활용함.
 - ‘이야기 할머니 사업’ : ‘옛집 지도’를 활용하거나 옛집 가상현실(VR) 체험관, 사이버 전시관 및 시뮬레이션 제작, 실제 체험관 설립으로 문화체험과 놀이를 아우르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작해 활용할 수 있음.

- 다매체 교육 : 집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을 조명함으로써 한국의 정신문화와 전통생활문화 학습을 위한 다매체 문화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가상현실(VR) 체험관 운영, 오디오가이드 서비스, 다양한 앱 개발 등과 함께 오락적 기능도 첨가해 일반인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음.
 - 문화 보존 기록 방법 교육 : '한국 옛집 콘텐츠 DB'는 집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의식을 실증적으로 조명하고 문화, 예술, 인문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DB 구축물로서의 가치를 지님.
 - 한국역사상 주요 실존 인물의 주거 공간을 통해 생활 곳곳에 스며있는 위대한 사상을 조망하고,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 언어예술교육 : 옛집의 문헌적 기록물은 한국인의 언어예술문화의 깊이와 미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승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므로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어교육 : 멀티미디어를 통해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자교육에 응용할 수 있음. '한국 옛집 콘텐츠 DB'는 비주얼한 학습 자료이므로 한옥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재외동포 등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고, 한국의 주거문화 및 예술에 대한 폭넓은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옛집의 편액, 주련, 시문판을 활용해 경연하는 콘테스트를 개최할 수 있음.
 - 각급 학교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준별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하기
 - 교사용 교육 매뉴얼 제공하기 : 옛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 운영방법, 교육 지침 등
 - 중고등학교의 Digital Literacy (디지털 文識) 교육 현장에서 '한국 옛집 콘텐츠'를 응용한 교수학습매체 제작도 가능함.
 - 다문화 공감과 소통
- 기대효과 : 한국 옛집을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전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정신 부흥 및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관련 외국 사례 : 독일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인 <Denkmal pflege(기념물관리)> 강좌
- 기타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결합하여 전통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

V. 결론

○ 조사대상으로서 옛집

- 전국에 산재한 옛집은 수 천여 채에 달하지만,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소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옛집의 존재 가능기간이 임계점에 달한 현 상황에서, 옛집 콘텐츠 DB구축 사업은 적실한 것으로 판단됨.
- 1단계 사업을 통해 옛집 제반 DB가 일차적으로 구축되었지만, 여전히 인식되지 못한 옛집이 많음.
- 2단계 사업을 집행하여 옛집 전수 조사를 시도함으로써 옛집을 보존·기억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보존가치를 지닌 옛집

- 보존된 옛집은 전근대, 근대, 현대를 연결함은 물론이고, 전 세대, 현 세대, 후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함.
- 옛집은 구조물과 함께 한자 기록물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건축학적 의의 뿐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대상임.
- 특히 옛집의 한자 기록물은 물리적 가치 뿐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내재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되어야 할 보고임.
- 훼손된 옛집 구조물을 복원하는 작업과 한자 기록물을 보존·복원·국역하는 작업이 집행됨으로써 한국적 인문가치를 고양할 수 있음.

○ 재생산 소재로서 옛집

- 옛집 제반 DB 구축은 단순히 옛집을 보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재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임.
- 옛집 제반 DB의 접근성·활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교육·문화·관광·학문 제 분야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2단계 사업은 옛집 제반 DB를 확장하는데 일차 목적이 있지만, 옛집의 재생산을 독려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